

[종합·해설]

우리당 재보선 참패... 새 판짜기 본격화하나

“여당發 정계개편 불가피” 계파간 모임 분주

10.25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에 따라 여당 발 정계개편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재보선 선거 전에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등 대주주들이 잇따라 ‘창당실 패론’을 거론한 상황이어서 정계개편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당 내에 폭넓게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여당 내부에서는 좁게는 지도부, 넓게는 계파로부터 조기 전당대회론, 재창당론, 통합 추진론 등 다양한 정계개편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여당 내부에서는 재보선에서 참패했으므로 지도부체제를 개편, 정계개편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는 것으로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체제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당내의 다양한 계파의 목소리를 담아내 정계개편의 방향을 논의하기에는 당내 동력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우리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처음처럼’은 이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하면서 현 비대위가 전당대회 등 정치일정을 준비하는 소임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 전대를 통해 당 정체성을 재확립, 우



26일 국회 기자실에서 조정식 의원(가운데) 등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모임 ‘처음처럼’ 소속 의원들이 10.25 재보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함께 조기 전당대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조기 전대·헤쳐모여식 창당 등 거론 ‘노대통령 탈당 불가피론’ 다시 수면위로

리당 중심으로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 전대 개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기 전대론은 오히려 실질

적인 정치권의 재편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길” 운영위원인 전병헌 의원은 “재창당은 호박에 줄 갖는 것이 조기 전대

는 호박걸질을 두껍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우리당이 실망한 국민에게 새로운 집권의 희망과 비전의 틀을 새롭게 짜서 새 당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가 민주당과 고건 전 총리 측 등 외부세력과의 물밑 대화를 통해 충분한 준비 작업을 한 뒤 전당 대회는 우리당의 해체와 신당의 출범을 알리는 절차로 만들자는 재창당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호응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 등 민주세력이 제3지대에 모여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헤쳐모여식 통합신당 창당론’이 거론되고 있다. 성사 과정이 거칠고 어렵기는 하지만 파괴력과 응집력이 그 어느 정계개편 방안보다 크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의 탈당론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우선 헤쳐모여식 통합의 최우선 협상 대상인 민주당이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더욱 자연스러운 통합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 일부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동욱 기자 sykim@kwangju.co.kr

민주 ‘與 흔들기’ 시동

한화갑 ‘헤쳐모여식 신당론’ 제시

내부선 ‘공천 책임론’ 일기도

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도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조기 정계개편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우선 주도권 2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은 헤쳐모여식 정계개편론을 내세우며 열린우리당의 분열을 재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분열할 경우 민주당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6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을 위해 3가지 전제조건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과 열린우리당의 해산,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다.

3가지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제 3지대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당이 민주당의 전통성과 철학을 계승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다.

한화갑 대표는 “이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접촉

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흔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도 고민이 있다.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내부적인 진통과 함께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재판 등이 정계개편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때문이다.

우선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국회의원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공천 실책은 한 대표의 자기 사람 심기 등 사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런 체제가 계속되는 것은 결코 참을 수 없다”며 “집단 지도부체 전향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당의 정계개편 구상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 한 대표가 의원직 상실 형을 받을 경우 당내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일부 의원들이 개인 플레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고건 “중도세력 연대 필요한 시점”

고건 전 국무총리는 26일 “지금이야말로 중도실용개혁세력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10.25 재보선 결과와 관련, “국민이 집권여당이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덕봉 전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고 전 총리의 발언은 우리당 내에

서 헤쳐모여식 통합신당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리는 지난달에도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중도통합 신당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 전총리는 “열린우리당은 선거패배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사위, 이헌재씨 등 6명 동행명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할당매입 의혹 사건 및 사형성 게임 ‘바다이야기’ 수사와 관련,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의 동행명령장을 발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총리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

장 등 론스타 사건 관련자 4명, 김성재·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바다이야기’ 수사 관련자 2명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해진다. 이들과 별도로 국가 증인으로 거론됐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달라진 지역 민심 확인”

한나라 전남도당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재순)은 26일 10.25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달라진 지역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이날 박 위원장 명의의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재·보궐선거 사상 처음으로 전남 3곳에 모두 후보를 냈고, 아쉽게도 두 자릿 수 지지율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달라진 민

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호남계간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호남 주민의 품속에 안기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들께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보선에서 실패한 해남·진도 국회의원 후보는 8.2%, 임근욱 화순군수 후보는 5.2%, 김영석 신안군수 후보는 2.6%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정국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legal services with multiple lawyer profil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entury air conditioning systems, featuring a man pointing and various product models.

Advertisement for 'Bates' (뱃살) and 'Bibi' (변비) treatments, including FDA approval and product images.